

전주, 문화예술 공모사업 대거 선정

시, 올해 13건 선정, 국·도비 45억 7000만원 확보... 문화특별시 추진에 탄력 기대

전주시가 올해 문화 예술 분야의 각종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올해 현재까지 정부와 전북도의 문화 예술 분야 각종 공모 사업에 총 13개 사업이 선정, 국비 40억 4000만원과 도비 5억 3000만원 등 총 45억 7000만원(총 사업비 72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연 분야에서는 △한옥 지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 △한옥 마을 전통 연희 페스티벌 △전주 대사들 놀이 전국 대회 △문화재 야행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예술 마을 길뜨내기) 등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연구 개발 분야에서는 △문화 기술 연구 개발 지원 사업(공예 소재) △전통 문화 융복합 지원 발굴 △문화 기술 연구 개발 지원 사업(공예용 바이오 접착제 및 평가 기준 개발)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

공간 활용 분야의 경우 △유류 공간 활용 문화 예술 교육 센터 지원 사업 △문화 예술의 거리 조성 지원 사업(동문 예술 거리) 등 2개 사업이 선정, 이 외에도 △지역 문화 전문 인력 배치 지원 △테마 여행 10선 △재외 공관 한스타일 공간 연출 사업도 선정됐다.

특히 '폐공장 부지를 활용한 문화 예술 교육 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10억원 등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지난 달 23일 개관한 팔복 예술 공장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3D프린팅 체험 지난 6일 오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이 3D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장비로 축구를 하고 있다.

다. 이를 통해 북부권 팔복동 산업 단지에 위치한 팔복 예술 공장이 연간 11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 마을과 연계한 전주 문화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전주 문화 역량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공모에 선정된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전주 교유의 대동 놀이인 전주 기적 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서화동 예술인과 지역민, 관광객이 참여 하는 공연·체험·전시 프로그램으로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서화동 서화

예술촌을 주 무대로 총 8회 열린다. 향후 발표되는 문체부 등 중앙 부처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고 전주 문화 재단 등 출연 기관 및 문화 전문가들과의 공조를 통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덕진구, 사회복지요원 소양교육 가져

덕진구가 행정의 최전선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 '덕진 공무원' 사회 복지 요원들을 격려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6일 덕진구청 2층 강당에서 덕진구 사회 복지 요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민 봉사 정신 함양'과 '진철 역량 강화'를 위한 '2018년도 상반기 사회 복지 요원 소양 교육'을 가졌다.

김기영 덕진구청장은 일선에서 행정과 현장 업무에 투입돼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하는 사회 복지 요원들을 격려했으며, 복무 기간 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복무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1부 임소영 강사를 초빙해 'Let play 진로 탐색'이라는 주제로 사회 복지 요원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진로와 직업 선택 △2부 사회 복지 요원 담당자의 '복무 기강 교육 및 안전 교육'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이후 사회 복지 요원들의 고민들을 듣고 해결해 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타의 모범이 돼 우수 사회 복지 요원 10명에 대하여 표창장과 부상으로 특별 휴가증(5일)도 수여, 사회 복지 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참여형 인권 실천 교육 '앞장'

전주시인권센터, 인권학당 '새로고침' 열어

전주시가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소수자 등 각 분야별 인권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형 인권 실천 교육을 한다.

시는 전주시 인권센터는 지난 6일 센터(서노송동 현대해상 8층)에서 인권 단체 직원 및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인권 학당 '새로고침'을 열고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강의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오늘 11월까지

지 6회 동안 8개 분야 85개 인권 단체 직원 및 회원이 참여해 강의와 토론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천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진희 (사)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이 강사로 초청돼 '장애와 젠더, 미투'를 주제로 △장애 여성 인권 침해 사례 및 장애 여성 인권 감수성 향상 △미투 운동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 신고 절차 등을 소개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공무원, 성추행 혐의 조사 중

전주시 공무원이 음식점에서 여성 손님에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전주시 소속 7급 김모(49)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2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손님 A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식점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열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CCTV 등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파악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삼민 기자

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8개 권역 27명 마을세무사 활동... 전화상담 · 대면상담 가능

전주시는 영세 사업자와 취약 계층 주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7명의 마을세무사를 활용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공익 활동에 대한 재능 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각 동별 담당 세무사로 지정해 세무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원하는 시민을 연결해 상담해 주는 제도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또는 완산·덕진구청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 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거나 개별적으로 만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밀집 지역이나 전통 시장, 동 주민센터의 세무 상담 수요 조사 후 마을

세무사가 현장을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5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대상 교육 현장을 전주시 마을세무사가 방문해 △공동 사업자 등록의 장단점 △폐업 시 주의할 점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등 주요 세테크 방법 등을 설명해 참석자에게 도움을 줬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재해위험지역 영화관 안전점검

전주시는 지난 5일 재해 위험 지역과 전주 국제 영화제 대비 영화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였다.

박순종 전주시 부시장은 이날 안반 파괴 및 탈락 등의 위험성이 있는 재해 위험 지구인 도토리골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공사 현장 일제 점검을 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가 안전 대진단 기간 종료에 앞서 막바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 박 부시장은 전주 국제 영화제에 대비해 고사동 CGV를 방문해 상영관과 피난 계단을 점검하는 등 영화관 안전 관리 이행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채규남 기자

전과 20범 찢질방탈이 20대 구속

전과 20범인 20대가 찢질방을 다니며 고객들이 자는 틈을 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6일 절도혐의로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에 전주시 효자동의 한 찢질방에서 A(24)씨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전국 찢질방을 돌며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찢질방 고객으로 가장해 다른 고객들이 잠든 사이를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김씨는 훔친 금품을 유혹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이삼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